

원전

그린산업/ESG 한병화
bhh1026@eugenefn.com

미국 원전주 급락과 대미 투자에 대한 단상

“ 지난 1년간 미국 SMR, 원전관련주가 폭락

2025년 4분기를 고점으로 뉴스케일 파워는 53.43달러에서 8.27달러로, 오클로는 174.14달러에서 38달러로 급락. 대형 원전을 신설해서 AIDC 사업을 할 계획으로 상장한 페르미 아메리카도 32.53달러까지 상승했다가 4.98달러로 하락한 상태. 주가 하락세가 단순한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수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들이 SMR 프로젝트 현실화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 업체들의 대부분의 계약들이 SMR 상용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검증에 시간이 필요한 반면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지속되고 있어. 유일한 설계 인증업체인 뉴스케일 파워는 최대주주인 플루오루가 지분을 전량 매각한데 이어 ENTRAI이라는 개발업체를 사업에 합류시킨 것에 대해 주주 소송이 진행 중. 오클로도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이 지속되고 있으며, 페르미 아메리카는 사업 이견으로 주요 창업자가 이사회에서 축출된 상태

“ 홀텍의 IPO 연기에 이어 테라파워의 EPC 업체인 백텔은 철수 발표

파이오니어 SMR 300을 건설하면서 9억달러 규모의 IPO를 추진하던 홀텍은 로드쇼 후 시장 여건 악화를 이유로 IPO 연기를 선언. 테라파워의 나트룸 SMR을 건설을 전담하고 있는 백텔은 와이오밍 실증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철수한다고 발표함. 작년 상반기까지 SMR 등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자금 조달 분위기는 최상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기술에 대한 상용화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낮은 경제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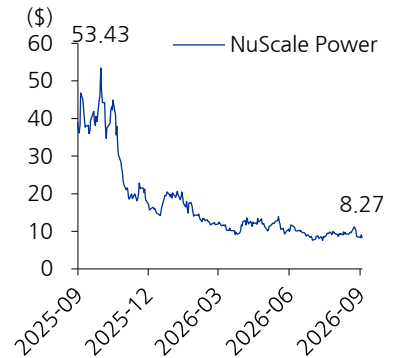
“ 대미 원전 프로젝트, 악화된 건설 여건 고려한 수익성 분석 기반해야

정부의 대미 투자 대상으로 원전이 확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 작용하고 있어. 하지만, 현재의 미국 원전 건설 조건은 과거 대비 현저히 악화된 상태. 가장 최근에 완료된 프로젝트는 Vogtle 3, 4호기. 이 원전의 건설 기간은 2013년부터 10년간. 현재의 10년물 국채 평균 금리는 5% 수준으로 당시의 0.9~3.7%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임금, 건설 기자재 등도 60~77% 상승한 상태. 더 힘든 것은 숙련공은 물론 단순 노동자들까지 트럼프정부의 정책 여파로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대미 원전 투자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Vogtle 3, 4호기 투자비인 기당 약 170~180억달러의 대비 얼마나 투자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 한국형 원전 2기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첫 건설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비 축소 효과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면 그 자체도 리스크 높일수 있어. 악화된 조건에 기반한 철저한 수익 분석이 필수

업종투자이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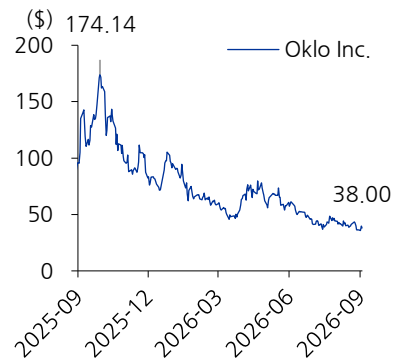
N/A

뉴스케일 파워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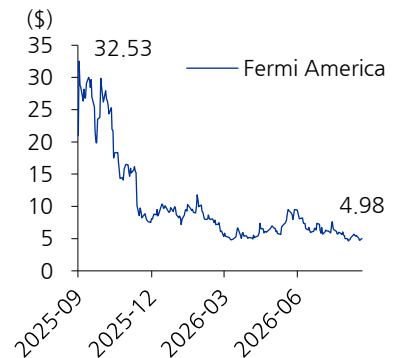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오클로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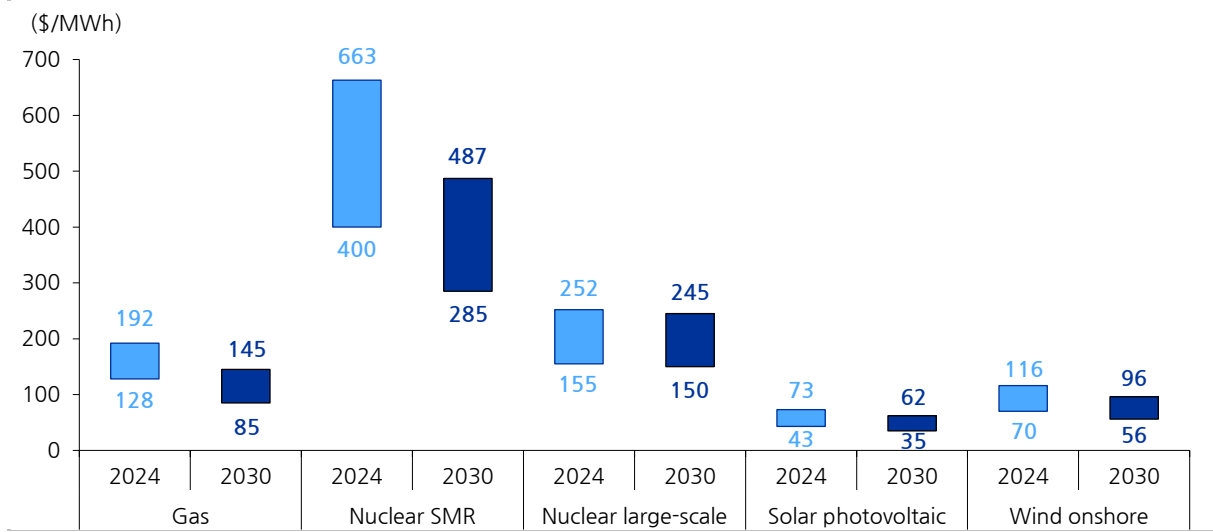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페르미 아메리카 주가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발전원별 발전단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